

삼성 양문형 냉장고, Good Design Award서 금상 수상



삼성전자가 일본 산업디자인진흥원(JIDPO, Japan Industrial Design Promotion Organization)이 주관하고 작년으로 50주년을 맞은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 「Good Design Award 2007」에서 양문형 냉장고가 'Best 15'(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7개 제품이 선정되어 국내 최다 수상기업이 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Good Design Award 2006」에서 '메모리 캠코더 SC-X210'로 'Best 15'을, '삼성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심사위원장 特別賞'을 국내 최초 수상한 바 있다.

삼성전자에 2년 연속 'Best 15'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겨 준 양문형 냉장고 (모델명: RSJ1KSSV)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

자이너인 제스퍼 모리슨 (Jasper Morrison) 과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관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내부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다

'Best 15'은 Good Design Award 全부분의 選定作 중에서 최고의 15개 제품을 뽑은 것으로, 25일에 있을 본 시상식에서 투표를 통해 이 중에서 大賞作을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양문형 냉장고 외에도 생활가전 4개 제품, 밀리언셀러 스마트폰 '블랙잭' 등 휴대폰 6개 제품, 스완·로간 등 프린터 4개 제품, IDEA 2007에서 금상을 수상한 '모비우스' 등 LCD모니터 2개 제품 등 총 27개 제품으로 「Good Design Award 2007」 국내 최다 선정 기업이 되었다.

LG전자,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 선보인다

LG전자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의 '200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고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LG전자는 22부식약 196m³ 규모로 전시공간을 마련, 고효율 시스템/신재생 에너지/뉴 인테리어zone으로 구성해 다양한 제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냉난방 동시 가능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싱크'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한 대의 실외기에 연결된 여러 대의 실내기에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고효율 인터버 압축기 기술을 적용, 용량 확대 및 긴 배관 설치가 가능해 대형 빌딩 고층 건물에 적합한 차세대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슈퍼(MULTI V SUPER II)'도 전시하였다.

또한 LG전자는 국제적 이슈의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를 공조 분야에 적용한 '지열 히트펌프 공조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여름철 실외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 혹은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겨울이라도 지중은 항상 10~15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활용했다. 이로써 일반 제품 보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4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WCG서 브랜드마케팅 突風	2007/10/07
2	삼성전자, 4G 후보기술 협의체 의장단 선출	2007/10/07
3	삼성전자, 터키 휴대폰 시장 트렌드 주도	2007/10/03
4	삼성 휴대폰, WCG 2007 공식폰으로 선정	2007/09/30
5	삼성전자, 세계 110여개국 로밍 테스트 실시	2007/09/20
6	삼성 디자인 인재들, 레드닷 컨셉 어워드서 실력 발휘	2007/09/19
7	삼성 애니콜, 새 브랜드 슬로건 Talk, Play, Love	2007/09/17
8	삼성전자, 업계최초 PDP LCD패널 누적출하 2억대 돌파	2007/09/17
9	삼성전자, 세계 컬러 레이저 복합기 시장 선도	2007/09/16
10	삼성전자, 모바일 하이브리드(F700) 유럽 출시	2007/09/13

LG전자 주요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북미 프리미엄 시장 터치스크린폰으로 잡는다	2007/10/05
2	LG전자, 고효율,신재생 에너지 기술력 선보인다	2007/10/02
3	LG전자 싸이언, 100억원 투입 대대적 비보이 마케팅	2007/10/02
4	LG전자, 중국서 사회 공헌 활동 박차	2007/10/01
5	LG전자, 브라질 3세대 휴대폰 시장 본격 공략	2007/10/01
6	LG전자, 제주/전남지역 수해복구 나서	2007/09/20
7	LG전자 블루레이·HD-DVD 지원 데스크톱PC 출시	2007/09/19
8	LG전자 親한국 해외 언론인 초청하고 이미지 높여	2007/09/17
9	LG트롬, 알라지에서 허리까지 케어한다	2007/09/10
10	LG전자, 남아공 가전 브랜드 5년 연속 1위 올라	2007/09/07

삼성SDI, 국내 최초 4년 연속 지속가능기업 선정

삼성SDI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에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4년 연속 회원사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사와 세계적 자산관리사인 스위스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사가 '99년부터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단순히 재무정보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s, SR) 지수 중 가장 권위있는 지속가능경영 종합 평가 지수이다.

삼성SDI는 지난 '05년 국내기업 최초이자 유일하게 DJSI에 선정된 데 이어 '06, '07년, '08년에 걸쳐 4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회원으로 선정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삼성SDI는 1년 동안 DJSI 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아 DJSI 공식 로고(Logo)를 기업설명회(IR)와 각종 공시, 대외 홍보자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DJSI는 올해 57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전 세계 2500개 대형 상장사를 분석해, 이 가운데 최상위 12.7%에 해당하는 318개 기업만을 선정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SDI, 포스코 2개사만이 포함되었다.

또한 삼성 SDI는 DJSI가 분류한 57개 산업부문 중 전자 기기(Electronic Equipment) 부문에서 "산업 선두기업(Industry Leader)"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다.

자원메디칼, 일본 현지법인에 3.7억 출자

자원메디칼은 지난 7월 12일 해외마케팅 강화 및 사업영역확대를 목적으로 일본 현지법인인 오와메디칼에 3억 7599만 5000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0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자원메디칼은 오와메디칼의 지분을 66.15%에 해당하는 주식 2,150주를 갖게 된다.

한편 오와메디칼은 전자동 혈압계 체지방 측정기 사업을 하는 자본금 4억 9812만 5000원 규모의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LS전선, 국내외 공장 신·증설에 700억원 투자

LS전선이 인도 수도인 델리(Delhi) 인근 바왈(Bawal) 산업공단 내에 총 3,800만달러(한화로 350억원 규모)을 투입하여 전선 생산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

100% LS전선의 단독투자자로 건설되는 이 공장은 총 부지가 5만평 규모로, 내년 하반기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는 휴대폰의 음성·영상 무선신호를 기지국 안테나에서 통신장비까지 전송하는 통신케이블인 동축케이블을 생산·판매하게 된다.

인도법인은 오는 2010년 2억불 정도로 추정되는 인도 동축케이블 시장에서 약 25%인 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함으로써 인도 최대 메이커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이 법인은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수행하게 되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력과 통신케이블도 생산할 예정이다.

인도 전체 전선시장은 매년 40% 이상의 고공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사업 확대로 인해 전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주도적 로컬 전선업체의 부재와 글로벌 전선기업의 현지진출도 초기 단계라 이번 LS전선의 인도진출은 인도 전선시장을 선점한다는 효과도 크다.

LS전선 정음공장은 현재 전자기기 회로기판용 범용 동박 위주로 6,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2차전자용 특수 동박 라인 증설로 생산능력을 10,000톤 규모로 확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특수동박을 전체 50% 이상 생산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비티씨정보통신, 24인치 모니터 출시



LCD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비티씨정보통신(www.btc.co.kr 대표 김성기)은 HDTV 수신이 지원되는 LCD 모니터 '제우스 7000 240HA'를 출시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제우스 7000 240HA는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5세대 디지털 TV 수신칩을 장착했다. 또 다른 화면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는 PIP(Picture In Picture), PBP(Picture By picture)기능을 지원한다. 메뉴 조정, PIP, PBP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리모컨도 제공한다.

▲DVI 단자 ▲D-Sub 단자 ▲컴포넌트 비디오 ▲컴포지트 ▲옵티컬 단자 등 다양한 음영상 단자를 채용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24인치 TN 패널을 채

택해 ▲5ms의 응답속도 ▲1000:1의 명암비 ▲400 칸델라의 밝기 ▲상하좌우 160도의 시야각 등이 특징이다.

'제우스 7000 240HA'는 GS이숍(www.gshop.co.kr)에서 단독 판매되며, 판매가는 63만7200원이다.

LG엔시스, 도요타 벤치마킹 연수단 운영

IT솔루션 서비스 전문 기업인 LG엔시스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 배우기에 나섰다.

LG엔시스는 7월초부터 한 달 동안 4번에 나눠 CEO와 임원들을 포함해 혁신 리더로 선발된 연수단 80여 명을 일본 나고야의 도요타 자동차와 협력사 등에 파견했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LG엔시스는 10월~11월에도 80~100명의 인력을 2차로 보낸다.

LG엔시스는 이번 연수를 통해 과잉생산 방지, 불량품과 재고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TPS: Toyota Production System)을 벤치마킹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엔시스 정태수 대표이사는 "도요타와 제너럴일렉트릭, IBM 등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사례를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조직 혁신이 뛰어난 도요타자동차 연수가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호컴넷, 6개년 매출 계획 발표

청호컴넷이 오는 2012년 매출액 10,136억원, 영업이익 1,550억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골자한 장기 매출 계획을 발표했다.

청호컴넷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제2금융권의 자동화기기 시장의 확대 및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

고 10월 4일 공사하고 또 금융 VAN사업과 CD & 현금유통물류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 이같은 매출 계획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매출 2,521억원에 영업이익 395억원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매출액 2,16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을 올리고 2009년에는 매출액 3,856억원, 영업이익 534억원을 달성하고 오는 2011년에는 매출을 7,115억원으로 끌어 올리고 영업이익도 1,06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티코리아, 양방향 전류 전력 모니터 IC 출시

티코리아는 I2C 인터페이스를 갖춘 양방향 전류·전력 모니터 IC(제품명 INA209)를 출시했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최대 100uV 오프셋으로 -40도에서 +85도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최대 1%의 높은 정확도를 실현하는 전류 센싱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제품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와치독(Watchdog)의 3단계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과도 상황을 무시하는 프로그래머블 지연을, 2단계에서는 지연 없이 출력을 각각 제공하고, 3단계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고속 아날로그 경로가 즉각적인 시스템 셋다운을 구현할 때 사용 가능하다.

티코리아는 이 제품은 서버, 텔레콤 장비, 배터리 충전기, 전원관리, 자동차 테스트 장비 등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니터링 및 전류·전압·전력 제어기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협력회사와 '원인 활동대회' 개최

삼성전기는 수원사업장에서 강호문 사장 등 임직원들과 103개 협력회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사 윈윈(Win-Win) 활동대회'를 개최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협력회사 윈윈 활동대회'란 삼성전기가 경영 혁신활동의 성과가 뛰어난 우수 협력회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혁신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등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펼친 것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경영, 품질, 제조 등에서 우수한 혁신활동을 펼친 (주)연호전자, 대주전자재료(주) 등 5개 협력회사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한편, 삼성전기는 그간 추진해온 상생협력 활동 중 우수 개선사례들을 모아 전시회를 가졌으며, 즉석에서 제품 제안 및 VE에 대한 상담 활동과 협력회사 상호간 사업 협의 공간을 만들어 진정한 '상생 비즈니스' 활동도 병행했다.

지난 '04년부터 협력회사와의 윈윈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삼성전기는 지난해를 상생협력 문화가 기업문화로 정착되는 시기였다고 판단하고, 올해에는 그 동안 추진해온 상생경영 활동들이 여러 방면으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기 강호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만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지난 '04년을 '상생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온 삼성전기는 지난해 말 거행된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상생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LG이노텍, 500만 화소 자동초점 카메라모듈 개발 성공



LG 이노텍은 Mobile 기기용 카메라모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최근 다기능,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핸드폰을 선호하는 고객

들의 요구를 한발 앞서 만족시키고 있다. 현재는 차량 전장, 노트북 등 신규 영역으로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카메라모듈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LG이노텍은 최근 500만 화소급 자동초점 카메라모듈 개발에 성공했다. 5M AF 카메라모듈은 9.5×9.5×6.6mm로 국내 초소형 사이즈이다. 자연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화질을 구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제품은 고화소 소형 자동 초점 카메라에 필요한 액츄에이터를 VCM(Voice Coil Motor) 방식을 채택해 카메라모듈의 소형화와 저전력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높이 5.0mm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200만 화소급 자동초점 카메라모듈을 개발한 바 있다.

LG이노텍은 고객가치 제언 R&D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카메라모듈의 고품질 및 소형화하기 위한 핵심부품 및 첨단기술을 선형하여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초점 기능 구현을 위한 액츄에이터로 슬림형 VCM개발과 초소형 SMD type VGA 카메라모듈 개발이 있다.

VCM의 자체 개발은 모듈의 소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어 향후 많은 응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기술이다.

가온미디어, 1차 최대이통사 셋톱박스 수주



가온미디어가 인도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이면서 위성용 DTH 서비스를 개시하는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사로 부터 1120만달러 규모의 MPEG4 SD7반 NDS CAS 방식 디지털 위성 셋톱박스를 수주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1차 확정 물량으로 내년 2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가온미디어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인도 최대 방송사업자인 헤스웨이(Hathway), 타타스카이(Tatasky)와 NDS CAS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디바이스, 미 국방부에 LCD 9000억 원대 공급 계약

디지털디바이스는 미국 국방부에 LCD TV와 LCD모니터를 연간 943억원(1억달러)씩 총 10년간 9000억원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 2일 밝혔다.



디지털디바이스는 미국 국방부 조달 에이전트 허슈캐피탈사와 양해각서(MOU)체결 한 달만에 4000만달러 규모 1차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1년 내에 1차 물량을 포함해 총 1억달러 규모 본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현재 허슈캐피탈사가 디지털디바이스를 미국 국방부 정식 조달업체로 등록시키

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달 중 정식 조달업체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은 대기업 2~3개에 불과한 상황이며, 국내 벤처기업이 정식으로 미국 국방부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디지털디바이스는 향후 출혈경쟁 없이 수출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회사측은 이를 위해 기존 안성공장과 대덕공장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해 생산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호중 사장은 "허슈캐피탈사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미 국방부 납품 및 물량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나스닥 상장기업과 전략적 제휴 및 상호출자 등 미국 현지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텍, 가장 선호하는 외장하드 제조사로 뽑혀



새로텍의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시중에서 인기 상한가를 치는 제품으로 급부상했다.

최근 G마켓 회원 1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장형 하드디스크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조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를 넘는 630명이 새로텍을 뽑았다는 것 이는 213명과 200명이 선택한 S사와 H사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결과다.

또한 앞으로 구입할 외장형 하드디스크 브랜드에 대해서도 새로텍을 뽑은 사람이 589명으로 48.32%를 차지했다. 이 질문에도 191명(16.67%)이 H사 제품을, 176명(14.44%)이 S사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